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배터리, 중국】 중국 CATL, 4조 4,207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지 건설계획 발표

【희토류, 중국】 희토류 등 희귀금속 가격 급등, 광물 대란 초긴장

【니켈·배터리, 미국·브라질】 GM, 브라질 발레(Vale)社 비금속 사업부 지분 매입 추진

【리튬, 브라질】 시그마리튬, 4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이차전지용 리튬 수출 예정

【보조금, EU】 EU, 공정경쟁환경 보호 및 보조금 규제완화에 합의

【역외보조금, EU】 EU, 역외보조금규제 의견수렴 진행

【공급망, EU】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기업환경 보호 의무 강화한 공급망실사지침 입장확정

【바이아메리카, 미국】 미국, 바이아메리카 시행 지침 개정

【크롬, 튀르키예】 중국, 튀르키예 지진이 크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우려

【밀, 인도】 인도 공급량 안정을 위해 밀 수출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 시사



GVC 뉴스 더하기

- ①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추진 동향
- ② 美·日·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합의



GVC 돋보기

- ① EU의 '23년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및 이행계획
- ②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GVC 전문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1편 - 반도체 제조 공정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전시회·상담회 안내
- ② 중국 단거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배터리, 중국】 중국 CATL, 4조 4,207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지 건설계획 발표

-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 1.29일 238억 위안(약 4조 4,247억 원)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기지(연 폐배터리 재료 회수 능력 50만 톤, 광둥성 포산 위치) 건설계획 발표
- CATL 자회사 광둥 방푸가 건설할 예정이며, 준공까지 4년 소요 예정
- 최근 몇 년 동안 이차전지 주요 원료인 리튬 가격이 폭등하여 배터리 재활용 사업성 증대

출처: Zhitong Finance APP(1.30)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희토류, 중국】 희토류 등 희귀금속 가격 급등, 광물 대란 초긴장

-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23.2월 초 기준, 희토류 가격 3개월 만에 31% 급등
 -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전기차·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희토류 등 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
 - 산업계는 “당장은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함
-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로 미·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로 활용할 가능성 대두
 - 첨단장비에 쓰이는 중(重)희토류는 중국 외에 대안이 없어 중국이 통관절차 강화나 수출쿼터 축소 등에 나서면 수입자는 대안을 찾기 어려움

출처: 파이낸셜뉴스(2.6), 비즈워치(2.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니켈·배터리, 미국·브라질】 GM, 브라질 발레(Vale)社 비금속 사업부 지분 매입 추진

-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니켈 생산기업 브라질 발레(Vale) 비금속 사업부 지분 투자 검토
 - GM은 발레 비금속 사업부 지분의 최대 10% 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액은 20억 달러에 이를 듯
 - 발레, 브라질·캐나다·인도네시아 등에 니켈 광산·가공시설 보유
- GM은 2035년까지 가스·디젤 엔진 차량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에 집중
 - GM, 2023년 초 “미국 네바다주 소재 리튬광산 개발 위해 리튬아메리카스에 6억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22년 11월 발레와 캐나다 퀘벡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황산니켈* 장기공급 계약 체결
 - * 연간 약 35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니켈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2.8), 블룸버그(2.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리튬, 브라질】 시그마리튬, 4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이차전지용 리튬 수출 예정

- 시그마리튬, '23.4월 브라질 바이아주 일레우스항 통해 중국으로 이차전지용 리튬정광 15,000톤 수출 예정이며, 이는 브라질의 첫 이차전지용 리튬 수출 사례가 될 것
- 시그마리튬 브라질 광산·가공시설의 리튬정광 생산능력은 연 27만 톤으로 '27년 81만 톤까지 증설할 예정
 - 시그마리튬의 브라질 리튬광산 가채년수는 13년으로, 매년 평균 62만톤의 리튬 정광 생산 추정
- 시그마리튬은 '18년 토론토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광산개발 투자금 2,000만 달러를 획득했으며, 현재 기업가치는 32억 달러에 달함

출처: Valor Economico(2.9)

■ 【보조금, EU】 EU, 공정경쟁환경 보호 및 보조금 규제완화에 합의

- EU 정상회의는 9일(목)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보조금 제도를 가시적으로 간소화하고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에 합의
 - EU 27개국 정상들은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 및 높은 에너지가격과 역외 보조금을 받게 될 섹터 전반에 대해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타깃형 지원(세제혜택 포함)을 신속 실시하기로 합의
 - 정상회의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허가 절차 신속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 또한, 유럽 자본시장연합(CMU) 결성에 관한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조속한 입법 합의를 촉구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집행위는 전략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MA)'을 오는 3월 8일 제안할 예정
 - 정상회의의 보조금 규제 완화 결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해온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보조금 규제 완화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향후 '유럽국부펀드*' 도입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여 양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 EU집행위원장은 보조금 지원 규정 완하시 재정 여력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보조금을 쏟아 부어 독주할 것을 우려하는 다른 회원국을 고려, 유럽연합기금 일부(총 8천 유로 중 약 2450억 유로)를 회원국들에 대출금과 무상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내용 및 장기적 투자 기금 확보를 위한 유럽국부펀드 신설을 제안
- EU 집행위는 3월 정상회의 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정상회의는 3월 및 6월 회의에서 집행위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2.10)

■ 【역외보조금, EU】 EU, 역외보조금규제 의견수렴 진행

- EU 집행위, 7.12일 시행예정인(23.1.12 발효) 역외보조금규제에 대한 역내외 의견수렴 절차 개시
 - 역외국가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EU 전략분야(공공인프라, 첨단기술 등) 등에 M&A나 공공조달에 진출하여 EU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를 매출액에 비례하는 벌금·과징금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기 위함
 - 의견수렴기간 : 2.6~3.6일(총 4주간)
 - 링크*하단의 '제출(Give feedback)' 클릭
 - *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602-Distortive-foreign-subsidies-procedural-rules-for-assessing-them_en
- 제출된 의견은 추후 집행위가 수립할 시행령에 반영되므로,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출처: KOTRA 브뤼셀 무역관 등

■ 【공급망, EU】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기업환경 보호 의무 강화한 공급망실사지침 입장확정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 요건을 포함한 환경 및 기후 보호 의무를 강조한 입장을 9일(목) 표결로 확정
 - * 기업 공급망실사지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로, 환경위원회는 지침에 대한 환경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 상 활동이 파리 기후협정과 EU 환경법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이런 목표 이행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 전환 계획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
- 환경위원회는 유럽의 엄격한 환경 및 기후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해 EU 역외 국가로 사업 활동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50년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 의무화'를 강조
- (표결 일정) 유럽의회 사법위원회가 위원회 입장 표결 확정(3월 중) →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5월)
→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으로 최종 법안 확정(여름 경)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2.10)

■ 【바이아메리카, 미국】 미국, 바이아메리카 시행지침 개정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8일 연방관보에 연방정부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플라스틱과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자재에 적용하기로 발표하며 세부 지침을 제시
 - * 바이든 미 대통령은 2.7일 국정연설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쓰이는 모든 건설 자재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요구하는 새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지침은 건설자재를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각 자재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안내
-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조품은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며, ▲기타 건축자재의 경우 각 품목별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한편, 예산관리국 지침에는 바이아메리카 적용 면제 조건도 함께 명시됨
 - (면제 기준)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국산 사용으로 총사업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예산관리국은 오는 3.13일까지 업계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의견 검토 후 최종 확정 예정

출처: 연합뉴스, SBS biz, KOTRA 워싱턴 무역관 등

■ 【크롬, 튀르키예】 중국, 튀르키예 지진이 크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우려

- 튀르키예 이스켄데룬항이 지진·화재 피해를 입자 중국 산업계는 크롬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 크롬은 스테인리스강 등 합금·도금·금속 세라믹·에너지저장장치 소재 등으로 쓰이는 금속으로 중국의 크롬 對外 의존도는 90%를 상회
 - '22년 중국의 크롬 정광 수입량은 1,500만 톤이며 터키 수입량은 95만 톤(점유율 6.3%)
- 對 튀르키예 수입 의존도는 높지 않지만 리오프닝과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에 따라 '23년 중국 크롬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업계는 크롬 가격·물동량 주시 중

출처: Weixin(2.10), <https://mp.weixin.qq.com/s/WQFFP-U4TAcssva3XidkjQ>

■ 【밀, 인도】 인도 공급량 안정을 위해 밀 수출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 시사

- 인도 정부는 국내 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밀 수출 금지령 연장 고려
 - 식품·농업·무역부 고위 관리들이 '23.3월 말~4월 초까지 '밀 수출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인도 정부는 식량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농부들로부터 매년 쌀·밀 구입, '22년 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밀 구매량이 '21년 대비 53% 감소
 - 정부 곡물창고 밀 재고량은 '23.1.1일 기준 '22년 동일 대비 47.9% 감소, 6년 만에 최저치(1,720만 톤) 기록

출처: The Economic Times (02.0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GVC 뉴스더하기 ① :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추진 동향

◆ G7·유럽연합·호주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약화를 위해 '22.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이어 '23.2.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디젤·등유 등 글로벌 연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개요) G7·유럽연합·호주, '23.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

- (목적) 러시아 정부의 수익감소 통해 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능력 약화 유도
- 제재 품목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확대 (디젤 등 고부가 제품 : \$100/배럴, 난방유 등 범용 제품 : \$45/배럴)
 -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G7·유럽연합·호주의 보험 이용이 금지됨
 - * 가격상한제는 2.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 적용
 - ** 2.5일 이전에 러시아에서 수출이 개시되거나 수출대상국 항만에 도착한 물량이라고 해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격상한제 적용
 -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EU는 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함
- 서방은 '22.12월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러시아가 튀르키예·인도·중국 등 대체 수입국向 원유 수출을 확대해 수출량 억제에 큰 효과가 없었음
 - 러시아 에너지부 잠정통계에 따르면 '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21년 대비 7.5% 증가
 -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 서방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원유·석유제품을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 일부가 러시아 물량 운송
 - *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인도 등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회사 증가

■ (영향) EU의 디젤유 비축량 증가, 석유제품 가격상승·마진확대,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가동률 하락

- EU 회원국, 러시아산 디젤 수입 제한에 대비해 디젤 비축량 확대
 - EU, '22년 디젤 전체 수입량의 절반 수준인 2억 2,000만 배럴을 러시아에서 구매
 - EU 회원국들, '23.2.5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실시예 앞서 디젤유 수입·비축량 대폭 확대
- 등유·디젤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 정제 마진 확대 가능
 -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 비축지 재고량이 많지 않아, 러시아 디젤 수출이 제한되면 단가 상승 가능
 - EU의 아시아·중동 등의 석유제품 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한국 정유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대한민국 정유사의 생산능력 중 등유·디젤 생산 비중은 50% 상회
-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가동률 하락 가능
 - 유럽向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인도 등 비제재국向 대체 공급에 한계가 있어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 감소 전망
 - * EU·미국의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인도·중국도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순수출국임

(참고) 美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공개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지침'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price_cap_guidance_combined_20230203.pdf



GVC 뉴스더하기 ② : 美·日·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합의

◆ 1.27일 美·日·네덜란드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對中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에 제한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 美·日·네덜란드 3개국* 1.27일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도입에 합의

* 세계 반도체 장비 빅5 : 美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KLA, 네덜란드 ASML社, 日 도쿄일렉트론社

- 日 외환법 성령(省令)*을 개정하여, '23년 초부터 '對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규제' 시행 예정 (산케이 신문, '23.2.5)

* 외환법 성령(省令) : 기업이 특정 제품·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요구하는 법령

- 네덜란드·日은 ASML와 니콘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됨

*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불화아르곤을 광원으로 사용해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장비

〈美·日·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현황〉

국가	세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FinFET 혹은 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nm 로직 반도체 ▲14nm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생산장비의 對中 수출 통제('22.10) · '23년 5G와 무관한 일반 부품 공급까지 전면 차단하는 강경 조치 추진 ('23년 추진 예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産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외환법 성령 개정, 기업의 의견을 모아 2023년 봄부터 對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규제 강화책 도입 예정 · '21년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해외 매출액에서 中 비중은 33%로 일본 반도체 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도쿄일렉트론은 '21년 3월부터 연간 매출액의 26%를 중국에 의존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ML社는 네덜란드 정부의 금수 조치로 '19년부터 반도체 초미세공정의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도 규제할 것으로 예상 · '22년 ASML社 매출액 중 중국 비중은 15%로 DUV 수출규제 시 매출액 타격 예상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따른 中 반도체 업계 타격 및 대응〉

기업	세부 내용
S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반도체 회사 SMIC, 네덜란드 ASML이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45nm 이상의 구식 프로세스 노드 사용 중 · SMIC는 '22년 ASML 장비 없이도 TSMC의 7nm 프로세스 노드 기술과 맞먹는 칩을 생산해 눈길을 끌었으나, 美견제와 부족한 개발비를 고려할 때 SMIC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은 불투명함
YM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TC, 중국 유일 낸드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로, 우한 2공장이 2023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장비 수입이 차단되면서 완공 일정 연기 · '22.12월 YMTC 등 중국 기업 36곳이 美 '수출통제 명단'에 오르면서 직원 10% 정리 해고 추진

■ 한편,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對대한민국 투자 확대

- 세계 4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머티어리얼즈(AMAT)·ASML·램리서치·도쿄일렉트론 대한민국 내 연구센터·생산설비 건설 추진 중
 - (머티어리얼즈) 경기도에 연구·개발센터 건설하고 10년간 연구인력 1,400명 채용한다는 계획 발표
 - (ASML) 경기도 화성에 재제조시설·트레이닝센터 건설 착공
 - (램리서치) '22년 4월 경기도 용인 지곡 산업단지에 연구개발시설 개관
 - (도쿄일렉트론) '12년 경기도 화성에 연구개발시설 건설, '23년 증축 돌입



GVC 돋보기 ① : EU의 '23년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및 이행계획

◆ EU 집행위원장은 '23년 EU 가스공급전망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22년도 조치와 성과를 설명하고, '23년의 중점과제 및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다(22.12.12). EU의 '23년 주요 정책과제 및 이행계획 중심으로 살펴보자

■ '23년 EU의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 EU는 '23년 중점과제로 △ LNG 공급 안보 강화, △ 가스 공동구매 실현,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가속화, △ REPowerEU 추진 강화 및 유럽국부펀드 설립 등을 선정(22.12.12)
 - (LNG 공급 안보 강화) 글로벌 LNG 수출 파트너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LNG 공급 확보. EU는 '22년 약 130Bcm의 LNG를 확보하였으며, '23년에도 비슷한 물량의 LNG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
 - (가스 공동구매 실현) '22년 구축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역내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체계를 추진. EU는 역내·외 국가·기업들과 협의 중이며, '23.3월 말까지 역내 가스 수요를 집계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할 계획
 - (재생e 보급·확대 가속화) EU와 회원국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화를 통해 '23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2년 대비 2배 정도 증대. 이를 통해 '23년에는 천연가스 12Bcm을 대체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7.5Bcm을 더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REPowerEU 추진 강화 및 유럽국부펀드 설립) 에너지 전환과 미래 유럽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회원국 및 EU 차원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REPowerEU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청정기술 분야의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설립하여 추진
 - * REPowerEU는 EU의 청정기술 투자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
 - ** 유럽국부펀드는 현재 고에너지 가격 상황 속에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활동을 지원
- 아울러, 에너지효율 강화, 가스 소비 감축, 가스 공동구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23년 가스 공급 부족 상황을 해소할 방침

■ '23년 EU의 주요 현안 이행계획

① 러시아 제재 조치의 지속적 시행

-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해상 수입 금지
 - EU와 영국은 해상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22.12.5일부로 금지하였으며, '23.2.5일부터는 석유 제품에 대한 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 단, 러시아 공급 의존도가 높고 대체 방안이 없는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고 '22.12.5일부터 이를 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 EU의 보험 및 해상수송 서비스 제공을 금지
 - EU는 '23.1월부터 2개월마다 상한선을 검토·조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IEA에서 산정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평균 시장가격보다 최소 5% 낮게 설정

② 유럽 내 가스가격 안정화 조치 시행

-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

- '23.2.15일부터 1년 동안 TTF 선물시장 기준으로 180유로/MWh의 가스가격 상한제 시행
 - * TTF 선물가격이 180유로 이상이면서 선물 TTF가 글로벌 LNG 가격보다 35유로 이상 높은 상황이 3일 연속 지속되면 발동

- 네덜란드 TTF(유럽가스가격) 대체 벤치마크 마련

- 러시아산 PNG 공급 축소와 LNG 도입 인프라 제약으로 인해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가스가격(JKM)과 미주지역 가스가격(HH)에 비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어, 네덜란드 TTF 대체 벤치마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져 관련 실무 작업이 진행 중
- 에너지규제기관 ACER는 EU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TTF 대체 벤치마크에 대한 작업을 3.31일까지 완료할 계획
 - * ACER는 LNG 시장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LNG 가격 평가보고서를 1.13일부터 매일 발간하기로 하였고 이를 활용해 3월 말까지 일일 유럽 LNG 벤치마크 가격을 마련·게시

③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3.10월~'25년까지의 과도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과도기간 동안 간접배출을 CBAM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예정
 - *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 (대상 품목) 과도기간 중 대상품목은 시멘트,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이며 탄소누출이 많은 6개 제품
- (보고 의무) 대상품목의 수입업자는 과도기간 동안 적용대상 수입품의 직접배출에 따른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을 보고해야 함

④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제안 계획

- (EU 전력시장 개편안) EU집행위는 '23.3월 말까지 에너지가격 결정 시에 재생에너지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EU 전력시장 개편안과 '23년 일몰되는 발전기업의 **황제세** 부과기간 연장안을 마련·발표할 예정
- (화물수송부문의 친환경화 패키지안) EU 집행위는 '23년 중에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화물수송부문의 친환경화 패키지안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에 관한 법률(REACH)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
- (수소은행 설립 법안) EU 집행위는 '23년 3분기 중에 '그린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30억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수소은행'을 설립할 계획
 - 그린수소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 및 역내 수소시장 조성을 위해 수소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며, 설립자금은 EU혁신기금을 통해 조성
 - 이를 통해 '30년까지 그린수소 1,000만 톤을 생산하고자 하는 EU의 목표 달성에 기여



GVC 돋보기 ②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 실적이 좋지 않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토록 한 기술특례상장제도와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지원을 위해 더욱 상장의 문턱을 낮춘 소부장 특례상장대에 알아보자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정식 명칭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란

*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코스피는 자기자본 300억원, 최근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요건 필요하나, 코스닥은 일반기업 기준 자기자본 3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등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음

- (목적)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 유상증자·사채 발행 등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제공 ('05년 도입 이후 '21년 말까지 총 143개社 상장)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4개사)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평가

평가 항목 : (기술성) 기술 완성도, 기술 경쟁우위, 기술인력 수준, (시장성) 상용화 수준,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 시장 경쟁력 등

- 자세한 평가항목은 KRX 법규서비스(law.krx.co.kr)의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의 별표1(전문평가의 평가항목) 참고

〈상장 요건〉

구분	일반기업(벤처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매출액 기준	시장평가·시장성 기준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① ~ ④ 중 택일)	①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 (벤처 : 10억원) & 시총 90억원	① 시총 500억원 &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총 90억원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
	②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 (벤처 :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 (벤처 : 30억원)	② 시총 3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벤처 : 50억원)	· 두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중 하나는 A 등급이상 하나는 BBB등급 이상	
	③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벤처 : 50억원)	③ 시총 500억원 & PBR 200%		
	④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50억원	④ 시총 1,000억원		
		⑤ 자기자본 250억원		

*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상장공시 → 주관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등 참고

■ 기술특례상장 - 소부장 패스트트랙 ('19년 도입)

- (목적) 日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기업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

- (조건)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 (발급 방법) 소부장.net(www.sobujang.net) 에서 '전문기업 확인' 탭 참고

〈 소부장 전문기업 요건 〉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업종(「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참고)
- 총 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중소·중견 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 (혜택) 기술평가요건 완화, 상장예비심사기간 단축

- (기술평가 완화) 기존 기술상장특례의 경우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하나의 평가결과는 A등급 이상, 나머지 하나는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소부장 트랙의 경우 한 개의 평가등급만 A등급 이상이면 되며, 기존에는 재평가 신청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소부장 트랙은 제외
- (예비심사기간 단축) 기존 45영업일인 상장예비심사기간을 30영업일로 단축



GVC 전문가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도원빈

◆ 日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규제(19.7월),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반도체 제조용 희귀가스 수급불안(22.3월), 미 「반도체 및 과학법」 공표로 가속화되는 탈중국화(22.8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①반도체 제조 공정, ②우리나라 반도체 공급구조, ③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반도체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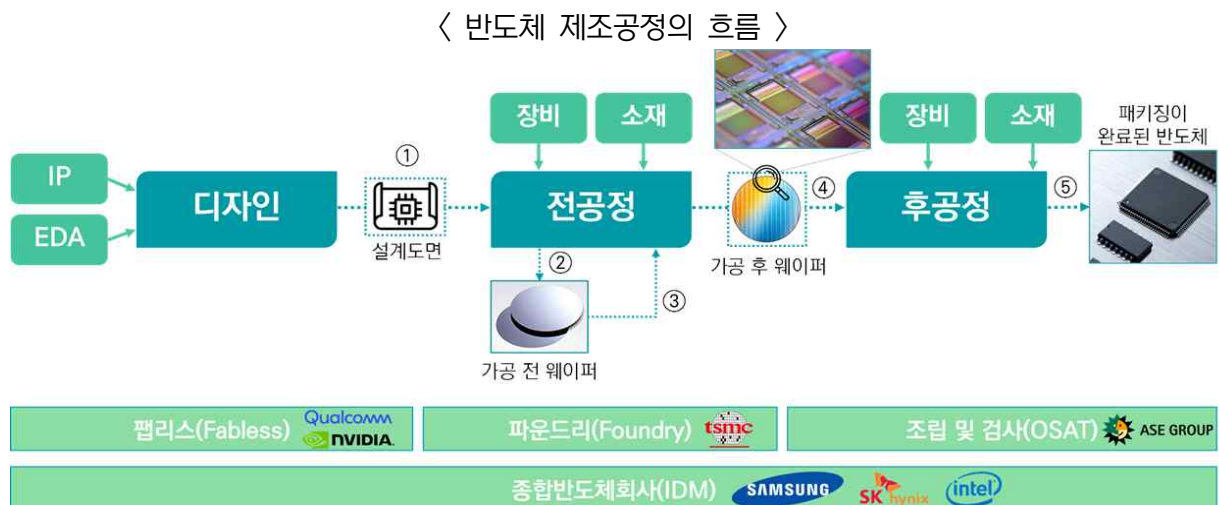
(46호) 반도체 제조 공정

(47호) 우리나라 공급구조

(48호) 주요국 대비 경쟁력

■ 반도체 제조공정은 크게 디자인 → 전공정 → 후공정 세 단계로 구분

- **디자인** 단계에서는 반도체 설계 도면을 제작하고, **전공정**을 통해 웨이퍼를 제조·가공한 뒤, **후공정** 단계에서 웨이퍼에 그려진 각각의 칩들에 대한 품질검사 및 패키징이 이루어짐
- 여기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팹리스**, 전공정 전문 기업을 **파운드리**, 후공정 전문 기업을 **조립 및 검사(OSAT)** 기업이라고 부르며, 반도체 제조 공정 전체를 담당하는 기업을 **종합반도체 회사(IDM)**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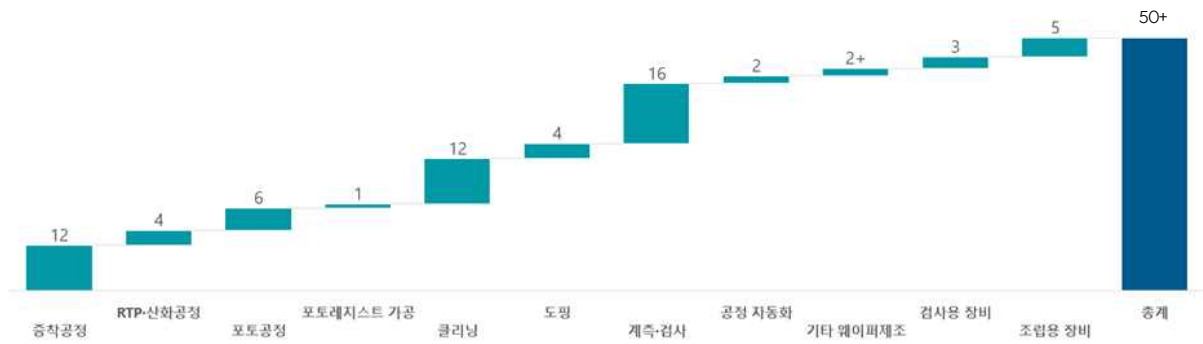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12.)

■ 반도체 생산의 투입요소로는 ①IP·EDA, ②반도체장비, ③반도체소재가 있음

- IP와 EDA(디자인용 소프트웨어)는 디자인 단계에서 사용되는 비물질적 투입요소로, 손쉽게 재생산이 가능한 특성상 공급 병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밸류체인 내 부가가치* 비중(2.4%)이 작음
- * 전공정 34.1 > 디자인 29.8 > 장비 17.3 > 소재 10.5 > 후공정 5.8 > IP·EDA 2.4 (% , CEST, 2019기준)
- **반도체장비**는 포토공정(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단계), 도핑(순수 실리콘에 불순물을 주입), 증착(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만듦) 등 복잡한 반도체 제조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특수목적용 기계로, 그 종류가 50가지 이상임
- **반도체소재**는 실리콘(웨이퍼의 재료), 포토마스크 및 포토레지스트(포토공정에 사용)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물질로, 300가지 이상의 소재가 제조공정에 투입됨

〈 반도체 제조공정 단계별로 사용되는 장비의 개수 〉



자료 : BCG, SIA(2021.04.), 저자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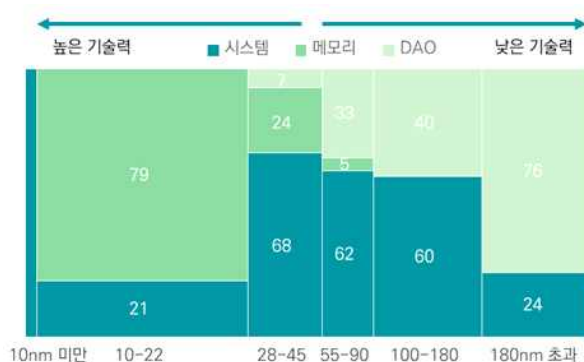
■ 반도체 제조의 최종 결과물은 ①시스템반도체, ②메모리반도체, ③DAO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스템반도체는 정보의 처리 및 연산을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로,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수행
- 메모리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DRAM(속도가 빠르나 단시간 내에 재충전하지 않으면 정보가 휘발), NAND 플래시(속도가 느리나 전원 종료 후에도 데이터 유지, SSD·모바일기기 등 스토리지에 사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DAO(Discrete, Analog, and Optoelectronics의 약자)는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개별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콘덴서), 소리·온도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아날로그 반도체(이미지센서, 터치컨트롤러), 광전자 소자(LED, 광섬유 등) 등을 포함

■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만들기 위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AI·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시장규모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품목임

- 10nm 미만의 최첨단 노드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시스템반도체이고, 메모리반도체는 10~90nm, DAO는 28~180nm 이상의 선폭으로 주로 생산됨(선폭이 얇을수록 높은 기술력 요구)
- '19년 기준 시장규모를 보면 시스템반도체(42%), DAO(32%), 메모리반도체(26%)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특히 컴퓨터와 ICT 인프라 부문에서 시스템반도체의 비중이 각각 64%, 48%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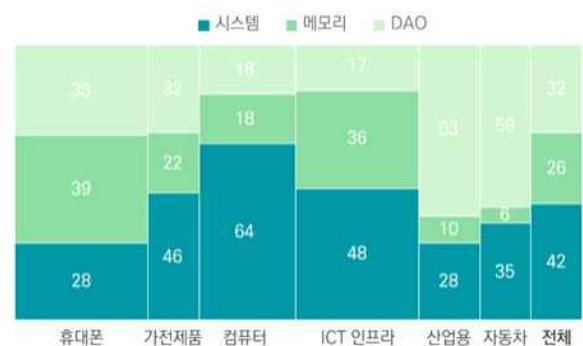
〈 반도체 품목별 미세공정 기술수준 〉



자료 : BCG, SIA(2021.04.)

주 : 가로폭은 각 노드별 생산량에 비례

〈 반도체 품목별 시장규모 〉



자료 : BCG, SIA(2021.04.)

주 : 가로폭은 각 산업의 시장규모에 비례('전체'는 예외)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설명회 안내

■ 2023 상반기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Korea Biz-Trade Show 2023)

- KOTRA 주관,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별 종합 수출상담회
 - 일시/장소 : 4.12일(수)~13일(목) / 코엑스 A Hall [오프라인]
 - 참가규모 : 해외바이어 400개사 내외, 국내기업 1,600개사 내외
 - 프로그램 : 산업별 사전 매칭 수출상담회, 전시상담회, 세미나, 계약·MOU 체결식, 수출애로119 종합지원부스

- 수출상담회

- 해외 바이어와의 사전매칭 기반 1:1 오프라인 상담

산업분야	세부내용
소비재	식품, 뷰티, 패션, 생활·유아 등
소재부품장비	전기전자, 반도체, 미래차, 조선·항공·기계
서비스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콘텐츠 등
ICT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에코, 스마트팜, 스마트제조 등
바이오의료	바이오, 의료 등
공공조달	공공조달 관련 전 품목

- 신청기한 : 2월 17일(금) 限
- 참가신청 : <https://boomup2023.kotra.biz/>
→ 상담 가능 시간 설정 및 희망 바이어에게 상담신청(2.21~2.24)
- 참가비용 : 무료 (국내기업 홍보/전시부스 미운영)
- 문 의 처 : KOTRA 소비재팀 ☎ 02-3460-7741/7733

- 전시상담관 및 미니쇼케이스 (선별, 유료)

- 전용 부스에서 제품 전시·홍보 및 현장 상담 진행 (부스 내 제품 전시 공간 및 상담테이블 포함)
* 전시상담관 : ICT(20개사), 미니쇼케이스 : 소비재(100개사)
- 신청기한 : 2월 17일(금) 限
- 참가신청 : <https://boomup2023.kotra.biz/>
→ 참가 신청 시 추가 선택 후, 승인 시 참가비 결제 (승인 여부 추후 산업별 별도 안내)
- 참가비용 : (전시상담관) 88만원(VAT 포함), (미니쇼케이스) 22만원(VAT 포함)

- 수출컨설팅(수출애로119) 및 세미나

- 전용 수출전문위원의 1:1 맞춤형 컨설팅 및 분야별 세미나(소비재·공공조달·서비스) 각 2시간
- 참가신청 : 참가 신청 시 추가 선택 / 현장 접수 가능
- 참가비용 : 무료



GVC 소식통 ② : 중국 단기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따른 KOTRA의 긴급 지원 사업

- 지원 기간 : 1.12일(목) ~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해결 시까지
- 지원 대상 :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對중국 비즈니스 애로 보유 우리기업
- 지원 데스크 주요 내용

① (정보전파) 중국 관련 주요 이슈 모니터링하여 對중국 수출기업 지원 특별페이지 통해 실시간 안내

* 입국 및 중국 내 이동 관련 제한 조치 및 중국 '23년 新산업진흥, 소비 진작 등 주요 정책 동향 분석 및 공유

② (상담) 기업 애로 접수·지원 통합창구 운영

- 對中 수출기업의 애로 종합 접수 및 상담지원

* 긴급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완결형 애로해소

- 對中 투자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심층 컨설팅 제공

* 법률, 회계, 물류 등 현지 한투센터가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비상근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긴급 조치 등 대응책 마련

③ (공급망) 원부자재 소싱 애로 기업 대상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

④ (사업) 중국 출장 애로 기업을 위한 대행 서비스 긴급 지원

- (무료) 수출24 글로벌 대행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사업을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해외 현장마케팅까지 지원

서비스명		지원내역	기존	특별지원(안)
수출 24	대리 면담 지원	▶ 수출 거래선과 대리 면담 수행	45만원	무료 (단, 기업 당 2건 한도)
	전시회 대리참관	▶ 중국 현지 전시회에 대리참관(바이어 명함 확보 등)	45만원	
	바이어 실태조사	▶ 수출 거래선(사무실, 공장) 대리방문, 현장 확인	45만원	
디지털마케팅		▶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후속지원	130만원	무료(8주 지원)

- (지사화) 해외 현지마케팅 또는 긴급 현장 참여가 필요한 업무에 KOTRA 해외무역관 전담직원을 투입하여 안정화 시점까지 지원

서비스명	지원내역	지원기간	참가비
긴급지사화	▶ 입국 제한으로 직접 수행이 어려워진 해외마케팅 업무 대행 * 출장대행, 거래선 발굴·관리, 인허가 취득 지원, 샘플시연·상담, 현지 유통망 점검 등	3개월	90만원
디지털긴급해외출동 서비스	▶ 디지털 기기로 실시간 현장을 보여주며 긴급현안지원 * 긴급현장대응(장비 시운전, A/S, 현장실사), 바이어면담(제품시연), 전시회 참관 등	3일/회	25만원 (기존 50만원)

- 문의처 :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특별 페이지\(링크\)](#)

KOTRA 대표전화 ☎ 1600-7119 > 5번 (휴대전화로 연결 시 2번(음성ARS) 누른 후 5번)

* 대표전화 통하여 세부서비스 상담 요망

글로벌 경제지표('23. 2. 15. 수)

[환율]

	'21말	'22.12말	'23.1말	2/13	2/14	2/15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231.90	1,277.30	1,269.40	1,282.20	1.01	1.40
선물환(NDF,1월물)	1,190.00	1,265.30	1,231.10	1,276.60	1,268.30	1,281.40	1.03	1.27
₩/CNY	186.51	181.44	182.51	187.05	186.46	187.73	0.68	3.47
₩/¥100	1,032.48	945.56	946.01	966.04	962.03	963.63	0.17	1.91
Y/U\$	115.14	133.73	130.22	132.22	131.95	133.06	0.84	△0.50
U\$/EUR	1.1318	1.0617	1.0837	1.0673	1.0735	1.0714	△0.20	0.91
CNY/U\$	6.3681	6.9630	6.7521	6.8282	6.8163	6.8435	0.40	△1.72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 *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48.7원, (₩/¥100) 955.8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2.13(전일)	'23.2.14	전일비(2.13)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4.43	84.91	0.5 0.6%	13.1 18.2%	6.1 7.8%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1.85	123.75	1.9 1.6%	44.3 55.7%	6.4 5.5%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912.00	8,931.50	19.5 0.2%	1931.5 27.6%	544.5 6.5%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382.50	2,391.00	8.5 0.4%	311.0 15.0%	30.5 1.3%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6,755.00	26,900.00	145.0 0.5%	7800.0 40.8%	△3525.0 △11.6%

[반도체]

	'21	'22	'22.11월	'22.12월	'23.1월	2.10	2.13	2.14	2월(~1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16	2.05	1.93	1.82	1.82	1.82	1.8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9.9	△23.0	△33.1	△40.3	△48.2	△53.3	△53.7	△53.7	△52.7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3	6.53	6.51	6.47	6.47	6.47	6.4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4.7	10.7	△11.2	△12.4	△13.7	△15.9	△15.9	△15.9	△15.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13	1.20	2.3	2.10	전전주(2.3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107.55	1031.42	1029.75	1006.89	995.16	△1.2%	△80.3%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13	1.20	2.6	2.13	2.14	전일(2.13비)	'21년말비
BDI	2217	1515	946	763	608	616	563	△8.6%	△74.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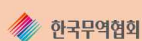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건설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전라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기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